

다산포럼



김한영
지식 칼럼니스트
데일리인베스트 대기자

날리 회자되는 격언들은 종종 현실을 단순화시킨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 인식에서 어떤 가능성을 지워버린다. 선택지를 좁히고 사고의 자유를 제약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만족한 태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은 ‘만족한 소크라테스’나 ‘불만족한 태지’라는 조합을 시야 밖으로 밀어낸다. 철학적 고뇌가 본질에서 더 우월하다는 가치를 암묵적으로 강조한다.

쇠렌 키르케고르는 “결혼을 하면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결혼이든 비혼이든 결과는 후회일 뿐이라는 인식을 남긴다. 만족스러운 결혼, 만족스러운 비혼이라는 시나리오에는 애초에 고려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 구조는 문제다. 우리는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야 한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와 ‘만족한 태지’ 사이에서 고르라는 구도 자체를 의심해야 한다. 왜 ‘만족한 소크라테스’는 상상하지 못하는가? 하나의 변수로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 두 개의 변

돈 많은 소크라테스가 되자

수로는 네 가지다. 하지만 사회는 네 가지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한다.

‘부뚜막에 올라간 안전한 고양이’라는 말 위에는, 나머지 세 고양이가 배제돼 있다. 부뚜막에 올라가지 않은 안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올라간 안전한 고양이, 여기에 인간의 순서(먼저/나중)라는 변수까지 더하면 여덟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 안전한 고양이’에서 ‘부뚜막에 나중에 올라간 안전한 고양이’까지.

우리는 그런 복합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특정한 고양이만이 ‘정답’인 양 받아들인다. 실제론 어떤 고양이가 가장 흔한지, 어떤 고양이가 나와 맞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런데도 사회는 특정 고양이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그것이 보편적이라 바랍적이라고 믿게 한다.

현대 사회는 종종 ‘오직’이라는 단어로 움직였다. ‘오직 반공’은 안보를 지켰고 ‘오직 수출’은 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억눌린 민주주의와 무시된 내수경제가 있었다.

마르틴 루터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도 강력한 힘을 가졌고 종교개혁을 넘어 시민사회 발전을 자극했다. 하지만 신앙은 선행, 전통, 그리고 개인의 의지와 결합할 때 더욱 단단해진다. 요약에서 나온 절대성은 변화를 이끌 수는 있어도 현실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 또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힌다.

이분법은 익숙하고 쓸모도 있지만 위험하다. ‘아는 것이 힘’이 될 수 있고 동시에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

다. “쳐다보지 말라”는 말도 “태산도 결국 하늘 아래에 있다”는 말도 모두 나름의 지혜를 담고 있다. 상황에 따라 답은 달라진다. 모든 것을 한번 뒤집어보는 훈련이 유익하다.

이슈 우하에서 여우는 수많은 꾀를 자랑하지만 결국 사냥개에 잡힌다. 반면 나무에 올라가는 한 가지 기술만 있는 고양이는 살아남는다. 하지만 이 이야기도 생각이 많다. 나무가 없는 들판이었다면 고양이는 죽었을 것이다. 여우의 100가지 재주 중에 사냥개보다 빠른 달리기 실력으로 빠르게 도망치는 기술을 사용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어쩌면 고양이는 선택이 문제였다.

여우와 고양이의 교훈은 단순하지 않다. 많은 선택지를 가졌다고 반드시 우월한 것도, 한 가지 기술만으로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도 없다. 핵심은 맥락이다. 전략이 아니라 그 전략을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생사를 가른다.

우리는 ‘이것 아니면 저것(either/or)’에서 ‘둘 다 그리고 모두(both & all)’가 보다 강화되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소유냐 존재냐’가 아니라 ‘소유도 존재도’로 인식을 넓혀야 한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복잡하다. 미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복잡한 사고를 요구할 것이다. 여전히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정리하는 능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질적인 욕망이 지워져선 안 된다.

단순함은 복잡함으로,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자유자재로 오가며 돈 많은 소크라테스가 되자. 지식도 있고 돈도 있으면 금상첨화 아닌가.

社說

막 오른 대선, 표심은 내란 심판·경제난 극복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2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7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이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첫 날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에서 ‘빛의 혁명’ 출정식을 갖고 내란 극복과 경제 성장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준석 후보는 이공계 출신을 부각시키기 위해 여수 산업단지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후보마다 내세운 전략은 다르지만 이번 대선은 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것이 만큼 표심의 최우선 기준은 내란 심판이 여야 한다.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키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의 후보자 판단 기준도 누가 이런 가치에 가장 적합한 인물인지 어떤 정당이 민주주

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유래없는 저성장 속 경제난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무너진 골목 상권을 살리고 관세전쟁 등 험난한 대외 여건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데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실용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더욱 심해진 진영 갈등을 봉합하는 통합의 과제도 시급하다.

호남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투표율과 득표율이 관심이다. 민주당 광주 시당은 광주시민 100만명이 투표를 참가해 90% 득표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주 여론에 오히려 투표율 하락도 우려되지만 내란 세력 심판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라면 역대급 투표율과 득표율로 응답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지역소멸 확인한 ‘李 경청투어’ 균형발전 계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골목골목 경청투어’가 첫발인 전남에서 마무리됐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경청투어를 시작했는데 11일 화순·강진·해남·영암 방문을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일정이 있었던 8일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됐는데 이 후보가 방문한 지역은 전국 51개 소도시다.

경청투어는 지금까지의 대선 캠페인과 다른 이색 선거운동으로 의미가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찾지 힘든 시군을 직접 방문해 골목을 누비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도시의 공통점이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경청투어가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으로 이어질지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청투어의 마지막 일정을 민주당의 첫 발인 전남으로 잡은 것은 지역민들에겐 낯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최북단 접경지에서 시작해 해남 땅끝에서 끝내는 국토

종주의 의미도 있지만 호남에서의 지지세를 응집해 정권교체의 주춧돌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강진에서 정약용 선생과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며 실용주의와 통합 정신을 강조했다. 해남에선 “지금 내편, 내편을 따지고 출신·지역, 좌우 색깔을 따질 때가 아니다. 국가가 위기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포용·용서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청투어를 마친 이 후보는 지역경제에 승통을 띄우고 무너진 민생을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를 거듭 강조했다. 지역소멸 위기 지역을 돌아보니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인식했다면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소명도 다시 한번 크게 생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경청투어는 정치사에 이색적인 선거 캠페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균형발전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를 살리는 정책투어였다는 데 있다.

청춘 특특

AI시대, 대학의 존재 이유



김혜연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3년

요즘은 리포트를 쓸 때마다 ChatGPT를 먼저 실행한다. 내가 다루고 싶은 주제와 분량만 입력하면 순식간에 매끄럽고 논리적인 초안이 완성된다. 지난 학기 밤을 새워 과제를 쓰던 내가 무색해진다. 리포트의 주제 선정부터 관련 논문 검색, 문장 다듬기까지의 힘든 과정을 건너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편리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AI로 과제를 마무리한 후에는 공허함이 내려온다. 분명 ‘완성’이라는 말은 어울리지만 그 속에 내가 들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마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숙제를 손쉽게 끝낸 것처럼 나만의 고민과 생각이 제대로 녹아들지 않은 느낌이다.

이럴 때마다 문득 생각하게 된다. AI가 과제를 대신할 수 있는 시대, 우리는 왜 여전히 대학을 다리고 있을까?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인터넷 검색 몇 번으로 충분한 세상이 아닌가.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강의실에서 모여앉고 토론하고 때로는 혼란 속에서 방황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지식이 더 이상 인간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다. AI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심지어 창의적인 작업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과 학습 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수업 중 교수님의 질문에 AI의 설명을 그대로 읊은 학생이 답을 얻지 못하고 멍뭉힌 장면이 떠오른다. AI의 설명을 그대로 읊긴 학생에게 교수님은 조용히 물었다. “그게 정말 네 생각이니?” 정답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스스로의 사고는 담기지 않았다.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늘 시험대에 오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 정답보다 질문을 소중히 여기는 공간이다.

AI는 정답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왜 그 답이 옳은가’, ‘그 답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 구석에서 고민에 빠져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 돌아오는 날들, 그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실패 속에서 사고하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러한 경험은 AI가 대신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다.

실패는 불안하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한 학습의 시간이다. 강의실에서 영동한 의문을 냈다가 웃음을 샀던 기억, 발표 중 논리가 틀렸다는 지적을 받고 머쓱해졌던 순간들, 그 모든 경험들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든

다. 실패를 허락하고 질문이 존중되는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의 터전이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그렇기에 대학은 ‘모름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장소여야 한다.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재도전을 겪으며 살아야 한다. 대학은 이러한 삶의 리허설을 경험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강의실에 앉아 있어야 하며 때로는 답을 몰라도 손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향한 나만의 목소리를 만들어간다.

AI가 과제를 대신하는 시대, 대학은 더 이상 ‘지식의 축적지’가 아니다. 오히려 ‘질문이 허락되는 공간’ ‘실패가 연습되는 시간’으로서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한다. 정답이 아닌 질문을 사랑하고 속도가 아닌 사유를 견디는 힘을 기르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대학에 있어야 하는 이유다.

AI는 우리의 삶을 대신할 수 없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며 삶의 방향은 우리가 직접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하고 흔들리며 스스로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대학은 그러한 시간을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학점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고된 리포트 속에서 문장을 붙들고 씨름한 기억이고 시험을 망친 날 친구와 나눴던 허탈한 웃음이다. 그것이 대학을 인간적인 공간으로 만든다. 우리는 정답보다 진심을, 속도보다 방향을 배워야 한다. 대학은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6·3 선거 공감’ 기고 <2>

함께 움직이면, 대한민국도 움직인다



정의찬
전남대 사회학과 4년

오는 6월 3일,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누군가는 “찍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누가 되는 달라지는 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정치는 우리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문제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화제는 취업 격정과 생활비를 포함한 경제적 고민이다. 식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알바를 병행하며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은 체력과 시간을 태워가며 하루하루를 버틴다. 그 속에서 내일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불안은 일상이 되어간다.

이런 문제들은 결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결국 해답은 정책에 있고 그 방향은 선거를 통해 결정된다. 지금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단지 오늘의 버거움이 아니라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선택이다. 그 선택의 기호가 바로 이번 선거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를 둘러싼 분위기를 과연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일부 정치인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언론은 당파적 프레임에 기대어 갈등을 키우는 데 몰두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유튜브와 SNS에는 각종 거짓 정보가

넘쳐나고 유권자는 그 속에서 진짜를 가려내는 팩트체크의 책임까지 떠안고 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정책이나 메시지조차 신뢰받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신뢰는 무너지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 오늘날 “투표해도 소용없다”는 냉소를 만들어나간다. 많은 사람은 점점 정치에 무관심해졌고 “누가 되든 다 똑같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제는 무관심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가 눈앞에 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할까.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 내놓을 공약을 책임 있게 설계해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약속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정책과 분명한 입장을 통해 진정성 있게 다가야 한다. 한동안 한국 사회는 득표만을 노린 표표리즘에 흔들려 왔고 지금도 자극적인 발언과 달콤한 공약이 언론과 SNS를 타고 손쉽게 소비된다. 하지만 책임 없는 정치는 갈등만 키울 뿐, 사회가 마주한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청사진이 되어야 한다. 유권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 국민의 판단 기준은 한층 높아졌고 정치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스스로 따져보려는 움직임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언론의 역할도 결코 가볍지 않다.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그 기대에 못 미친다. 선거철만 되면 갈등을 부추기거나 특정 인물을 겨냥한 보도와 자극적인 제목들이 넘쳐난다. 때로

는 특정 진영에 유리하게 흐르는 편향된 기사와 미묘한 워딩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이런 보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밖에 없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언론은 국민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누가 어떤 공약을 제시했는지, 그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어떠한지, 사회적 영향은 무엇인지 등을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언론 본연의 책무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지난 선거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논란은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고 정치권과 유권자 모두에게 깊은 불신을 남겼다. 특히 당시 논란이 현재 대통령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쳐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런 논란 자체가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 그렇기에 선관위는 모든 절차에서 오해의 여지를 없애고 보다 세심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오는 6월 3일, 우리는 또 한 번의 선택 앞에 서게 된다. 그 선택은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둘러싼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취업과 주거, 생활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앞에서 정치가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바로 ‘투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이슈에 휩쓸리기보다는 스스로의 판단 기준을 세워 투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無等鼓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는 매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떤 옷을 입을지, 점심 메뉴는 무엇으로 할지 같은 사소한 선택도 있고 결혼이나 취업·이사 등 중대한 선택도 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알파벳 B와 D 사이에는 무수한 C가 있다.”고 했다. 여기서 B는 탄생(birth)이며 D는 죽음(death), 그리고 C는 선택(choice)이다. 인간은 탄생과 죽음 사이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다.

침탈을 저지했고 전국의 광장과 거리에서 탄핵을 외쳤다. 계엄에서 파면까지 123일간의 투쟁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무자비한 총부리 앞에서 ‘수거’를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 시상식에서 한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 것이다. 그러나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은 ‘희대의 정치재판’으로 국민의 선택권까지 빼앗으려 했고, 국민의힘은 ‘한밤의 쿠데타’로 대선후보를 교체하는 소동까지 벌였다.

선택의 시간

깨어있는 시민은 선택을 통해 현실에 참여한다. 자신의 신념을 사회에 던지고 행동으로 책임지는 실천적인 자세다. 1980년 5월 광주시민이 그랬다. 전두환의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수부대를 투입했을 때 총칼 앞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했다. 광주는 10 일간의 항쟁 끝에 처절하게 패배했지만 ‘광주정신’으로 부활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됐다.

다시, 대선이다. 3년 전의 잘못된 선택은 정치·경제·사회·외교·국방 등에 던지고 행동으로 책임지는 실천적인 자세다. 1980년 5월 광주시민이 그랬다. 전두환의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수부대를 투입했을 때 총칼 앞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했다. 광주는 10 일간의 항쟁 끝에 처절하게 패배했지만 ‘광주정신’으로 부활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됐다.

지난 12월 3일 친위 쿠데타를 막은 것도 광주정신이었다. 오월 광주를 기억한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계엄군의 국회

/유재관 제작총괄국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일간)		우 61482 광주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회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